

한국어의 접속화

梁 續 錫

(韓國外國語大學)

차 례

- I. 머리말
- II. 접속사의 의미론적 분석
- III. 접속사의 도입
- IV. Discourse와의 연관
- V. 맺는말

I. 머 리 말

복합문(complex sentence)을 이루는 세 가지 기구 중에서 관계화(relativization)나 보문화(complementation)는 구문론 및 의미론적 입장에서 비교적 많이 연구 되어 있지만 문 접속화(clausal conjunction) 현상은 현재까지는 그리 많은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¹

저자는 이 논문에서 다음의 몇 가지 목표를 마음에 두고 있다. 첫째 한국어의 접속사 범주 중에서 몇 가지 재미 있는 범주를 골라서 각기의 범주 속에 들어 있는 각 개의 접속사의 의미론적 유사점과 차이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제2절). 둘째 의미론적으로 보면 접속사가 접속되는 문장 사이에 있다고 봄이 옳으나 구문론적으로 보면 한국어의(일본어도 마찬가지) 기본 접속사는 종속 접속사이며 소위 대등 접속사는 종속 접속사의 대형(pro-formation)이다 (제3절). 셋째로 세 가지 문 반복 현상(sentential recursion), 즉 관계화, 보문화, 접속화, 중에서 접속화 현상의 연구가 discourse 연구에의 길을 틀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제4절). 한편 한국어의 이런 현상들을 연구 제시함으로서 다른 나라 말의 접속화 현상 및 discourse 분석에 자극을 주고자 하는 주재념은 욕심이 숨어 있다.

본론에 들어 가기 전에 빈번히 쓰일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 밝혀 두고자 한다. conjunctor는 접속사, conjunct는 접속되는 문장, conjunction은 문 접속 현상을 뜻한다. 마치 관계화 현상에서 relativizer는 관계사², relative는 연결되는 문장, relativization은 관계화 현상을 뜻함과 같다. 또한 보문화 현상에서 complementizer는 보문사, complement는 내재되는 보문,

¹ 영어의 문 접속화에 관한 연구는 다음의 것을 볼 것 : Dougherty(1970, 1971), Gleitman (1965), R. Lakoff (1971).

² 한국이나 일본어에서는 relativizer가 없다. Yang (1972: 225-241) 참조.

complementation은 보문화 현상을 뜻함과 같다.

Ⅱ. 접속사의 의미론적 분석

이 논문에서는 한국어의 접속사 범주를 총망라해서 기술하지 않는다. 비교적 재미있는 세 가지 범주를 골라서 각 범주 내에 드는 접속사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다루는 세 범주는 (1) 이유 접속사, (2) 행위연속 접속사, (3) 반대행위(또는 사태) 접속사에 국한 되어 있다.

Ⅱ.1. 이유 접속사

이유 접속사는 대개 다음과 같다: 니(까), 아(서)(모음조화에 의해서 어(서)가 되는 것은 상식 이다), 므로, 기 때문에, 【 】s 고.

다음 (1)의 문장에서 보듯이 다소의 의미 차이는 있는 듯 느껴지지만 모두 이유 접속사의 구실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a. 책이 비싸—{니까, 아서, 므로, 기 때문에, 다고} 철수가 안 샀다.

b. 철수는 선생 이—{니까, 어서, 므로, 기 때문에, 라고} 보통 사람과 다르다.³

문제삼고 있는 접속사들이 이유를 나타내는 뜻으로 쓰인다는 점에서는 공통성이 있으나 모든 이유 접속사가 똑 같은 의미내용을 갖는 것은 아니다. 직접 동기유발(direct motive)이 기준이 되면 이 접속사들의 차이점이 다소 드러나기 시작한다.

(2) a. 철수가 술을 마시—{니까, (?)어서, (?)므로, (?)기 때문에, *ㄴ다고} 나도 마시고 싶다.

b. 철수가 서울로 가—{니까, (?)아서, (?)므로, (?)기 때문에, *ㄴ다고} 순자도 서울로 떠났다.

예문 (2a)에서 니까가 가장 자연스럽다. 아서, 므로, 기 때문에는 다소 덜 자연스러우나 비문법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런데 【 】s 고는 비문법적이다. 예문 (2b)에서는 【 】s 고가 문법적이라고 보기 쉽다. 그 이유는 보고형식의 화법으로 해석하면 【 】s 고도 문법적이기 때문이다. 명령문에서는 차이점이 더 많이 나타난다.

(3) a. 사정이 급하—{니까, *아서, (?)므로, (?)기 때문에, *다고} 빨리 가라.

b. 사정이 급하—{아서, 다고}(휴지) 빨리 가라.

예문 (3a)에서 니까는 아주 자연스럽지만 므로와 기 때문에는 덜 자연스럽다. 그러나 문법적이기는 문법적이다. 그런데 아서와 【 】s 고는 아주 비문법적이다.

예문 (3b)에서는 아서와 【 】s 고가 자연스럽게 들린다. 그러나 휴지가 없으면 자연스럽지

³ Copula 문장에서는 다가 라로 변형된다. 또한 이 예문에서 라고대신에 라만 써도 된다. 어린애들은 라고대신에 다고라고 쓰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copula 문장에 있어서도 기본형은 다고이고 라고는 변형에 의해서 된 것임을 언어심리적으로 뒷받침하여 주는 것이다.

않다. 사실상 더 자세히 살펴보면 후지부분에 어떤 문장이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사정이 급해서 네가 가야 되니까 빨리 가라”든지 혹은 “사정이 급하다고⁴ 내가 너에게 말한다. 빨리 가라”가 원래의 뜻이다. 그래서 예문 (3b)는 (3a)에 대한 반증이 아니고 피상적 반증임을 알 수 있다.

【】s고가 명령문에서는 쓰이지 않음을 위에서 보았다. 그러나 부정명령문이 되면 【】s고가 자연스럽게 들린다.

(4) a. 돈이 없—{*으니까, *아서, *으므로, *기 때문에, 다고} 슬퍼하지 마라.

그러나 깊이 살펴보면 부정명령문에서 【】s고가 쓰이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를 포착한 것이 아니고 특수한 경우만을 본 것이다. 다음의 예문 (4b)를 보자.

b. 빈대가 많—{*으니까, *아서, *으므로, *기 때문에, 다고} 절간을 태울 수는 없다. 예문 (4b)에서 보듯이 부정명령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s고가 자연스럽게 들린다. 이렇게 보면 부정명령문은 좁은 테두리이고 보다 일반적인 기준은 첫 conjunct와 다음 conjunct가 순리(順理)로 연결되지 않고 역리(逆理)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s고가 쓰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덧붙여 둘 것은 접속사 부분을 강조하면서 또한 다소의 휴지를 두고 말하면 안된다고 지적한 접속사들도 【】s고의 뜻으로 쓸 수 있다. 이때에는 첫 conjunct가 다음 conjunct에 있는 부정의 scope가 된다.

【】s고는 둘째 conjunct가 인간의 행위(human act)를 나타내지 않으면 쓰이지 않는다.

(5) a. 비가 오—{니까, 므로, 기 때문에, ㄴ다고} 능부들이 기뻐했다. (human act)

b. 바람이 부—{니까, ㄴ므로, ㄴ기때문에, *ㄴ다고} 그 나무가 흔들린다. (non-human act)

이와 반대로 반문(rhetoric question)의 경우에는 【】s고만 쓰이고 다른 접속사들은 쓰이지 않는다.

c. 바람이 부—{*니까, *ㄴ므로, *ㄴ기 때문에, ㄴ다고} 그 나무가 흔들리겠느냐?
(안 흔들리지)

그러나 예문 (5c)는 【】s고가 인간의 행위를 나타내는 문장이 아니면 쓰이지 않는다는 결론에 반증이 되지 못한다. 예문 (5c)는 예문 (4a,b)에서 보듯이 【】s고가 두 conjuncts의 역리관계로 연결될 때에 쓰인다는 일반성에 대한 특수 경우에 불과하다. 또 한가지 덧붙여 둘 것은 예문 (6)에서 보듯이 인간의 행위에서 가능성(할 수 있다/없다, 못한다)은 제외되어야 한다.

(6) a. 그 문제가 어려우—{니까, 어서, 므로, ㄴ기 때문에, *ㄴ다고} 철수가 {못 풀다, 풀 수 없다}. (가능성)

⁴ 이런 형태의 고에 대해서는 double modality 현상과 함께 Yang (1971)에서 일괄해서 논의 되고 있다. Yang(1972: 28-29)에서는 Yang(1971)이 주장한 것 중에서 세 가지 점을 수정하고 있다.

b. 그 문제가 어려우—{니까, 어서, 므로, 기 때문에, 다고} 철수가 안 퓰다.(가 능성이 아님)

구문론 입장에서 살펴 보면 다른 이유 접속사는 모두 과거형 앓과 같이 쓰일 수 있는데 아서만은 그렇지 못하다. 그 대신 둘째 conjunct 의 시제에 따라서 아서의 시제가 상관관계 를 맺고 변한다.

(7) 그 기계가 고장 나—{았으니까, *았어서, 앓으므로, 앓기 때문에, 앓다고} 철수가 버 렸다.

아서가 과거형과 함께 쓰이지 않는 것은 아서만의 특유한 현상이 아니라, 한국어에서 보문 사나 접속사나 부사로 쓰이는 아(서), 고(서), 게는 언제나 과거형과 함께 쓰이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아(서), 고(서), 게는 자연류(natural class)를 이루고 있다.

지금까지 이유 접속사들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 보았다. 이제 이와 같은 형태의 접속 사들이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경우를 살펴 보자.

(8) a. 내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철수가 오더라.(우연의 일치)

b. 철수가 손잡이를 잡아서 돌렸다.(행위의 연속)

c. 나는 [철수가 착하다]고 생각한다.(보문사)

d. 저것도 [남편이라]고 큰 소리친다.(결격자격)

e. [철수가 왔다]니까 만나 보겠다.(축약)

예문 (8a)에서 니까는 우연의 일치를 뜻하며 “하고 있을때에”와 비슷하게 쓰이는 시간표시의 접속사이다. 예문 (8b)에서 아서는 행위연속 접속사로서 다음항에서 다루게 된다. 예문(8c) 에서 고는 보문사이며 다른 보문사 것과 대조적으로 쓰일 경우가 있다. 즉 것보문사를 가진 문장에서는 보문이 사실임이 전제되어 있는데 반해서 고보문사는 대개 그런 전제(presuppo- sition)가 되어있지 않다(cf. Yang, 1972: 220). 예문 (8d)에서 고는 첫 conjunct의 자격을 의 미하나 그 자격이 다소 결격되어 있을 때만 쓰인다. 이 문장에 있어서 남편이 제 구실을 다 하는 처지라면 고가 쓰일 수 없다. 예문 (8e)에서 니까는 어떤이가 나에게 그렇게 말해 주 니까의 약으로 해석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이유 접속사들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일목요연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다

(9) Matrix of reason conjunctors

	니(까)	아(서)	므로	기때문에	【 】s고
direct motive	+	*+	*+	*+	—
command	+	—	*+	*+	—
counter-consequent	—	—	—	—	+
non-human act of 2nd conjunct	±	±	±	±	—
past form	+	—	+	+	+
다른용법	우연의일치	행위연속			1. 보문사 2. 결격자격

음과 같은 matrix를 만들어 볼 수 있다.

이 matrix에서 플러스 앞에 있는 별표는 덜 자연스럽다는 것을 뜻하고 土는 관계된 속성과 직접관계가 없음을 나타낸다. 앞으로 나올 matrix에서 마이너스 앞에 있는 별표는 안쓰이기는 하나 전연 못 쓴다고 하기에는 좀 지나치다는 뜻이다. 이 matrix에서 보듯이 **므로**와 **기** **때문**에는 차이점이 나타나 있지 않다. 이것은 두 접속사가 자유변이 비슷하게 쓰일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II.2. 행위연속 접속사

이 항에서는 행위연속 접속사들을 논의 하고자 한다. 이 범주에 속하는 접속사는 대개 다 음과 같다. 다(가), 았다(가), 고(서), 아(서), 면서.

예문 (10)에서 보듯이 뜻의 차이는 있지만 이들 접속사들이 행위연속의 뜻으로 모두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0) 철수가 두 손을 들—{다가, 았다가, 고서, 어서, 면서} 만세를 불렀다.

그러나 두 conjuncts가 반대(opposite)의 뜻을 가질 때에는 이 접속사들의 차이점이 다소 나타난다. 먼저 여기에서 말하는 반대의 개념을 밝혀 두어야 하겠다. 여기에서 말하는 반대라는 것은 (1) 주어는 같고 서술부가 다를 때에(unlike predication)나, (2) 서술부는 같고 주어가 다를 때에(unlike subject)를 의미한다. 만일 주어도 다르고 서술부도 다르다면 필자의 정의에 의해서 opposite conjuncts로 규정짓지 않겠다.

(11) a. 철수가 서울에 가—{다가, 았다가, *고서, *아서, *면서} 왔다.

b. 종소리가 한번 들리—{다가, 았다가, 고서, *어서, *면서} 안 들리었다.

c. 철수가 이 옷을 입—{다가, 았다가, *고서, *아서, *으면서} 순자가 입었다.

d. 철수가 굴속에 들어가—{*다가, *았다가, 고서, *아서, 면서} 순자가 나왔다.

예문 (11a)에서 주어는 같고 서술부가 반대되는 경우이니 opposite conjuncts의 정의에 맞는다. 다가와 그 과거형인 았다가는 문법적임에 반하여 고서, 아서, 면서는 쓰일 수 없다. 예문 (11c)에서 서술부는 같으나 주어가 다르니 opposite conjuncts의 정의에 맞는다. 문법적인 것과 비문법적인 것은 예문 (11a)와 같다. 그러나 예문 (11b)에서 보듯이 시간연속의 부사가 있으면 opposite conjuncts임에도 고서가 쓰임을 알 수 있다. 예문 (11d)에서 주어도 반대로 서술부도 반대니까 opposite conjuncts의 정의에 맞지 않는다. 이 때에는 다가, 았다가, 아서는 쓰이지 않고 고서와 면서는 쓰일 수 있는 것 같다.

다가와 았다가는 첫 conjunct의 미완료대 완료를 뚜렷이 나타낸다.

(12) a. 이 차를 타고 가—{다가, *았다가} 중간에서 내려라.

b. 이 차를 타고 가—{*다가, 았다가} 올 때에는 걸어 오너라.

c. 이 것을 알—{*다가, 았다가} 후에 썩 먹어라.

d. 이 일은 알—{다가, *았다가}도 모를 일이다.

다가는 행위의 중단이며 비완료임에 반하여 **있다**가는 행위의 완료를 의미한다. 예문(12a,b)에서 중간에서 내린다는 것은 행위의 미완료이기 때문에 **다가**만 쓰이고, **다 갔다가 올 때**에는 어떻게 하라는 것은 행위의 완료를 전제해야 되기 때문에 **있다**가만 쓰인다. 예문(12c,d)에서 후에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은 일응 먼저 행위의 완료를 전제해야 하며, **알았다**가 잊을 수는 있어도 **알았다**가 모를 수는 없고, **알다**가 모를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첫 conjunct의 완료 대 미완료가 다른 행위연속 접속사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살펴 보자.

(13) a. 순자가 작년에 시집가—{*다가, **있다**가, 고서, 아서, *면서} 금년에 아이를 낳았다.

b. 이 건물을 둘—{다가, **있다**가, 고서, 아서, 면서} 가거라.

예문(13a)는 첫 conjunct의 행위가 일응 끝나야 다음 conjunct가 연결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다가**와 **면서**는 미완료를 뜻하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다. 예문(13b)에서는 모두 쓰이나 그 뜻들이 다르다. **다가**와 **면서**는 도는 것은 완전히 끝마치지 않는 상태를 뜻하고, **있다**가, **고서**, **아서**는 완전히 끝남을 뜻한다.

면서의 특징은 두 conjuncts의 동시성에 있다.

(14) a. 순자가 웃—{*다가, ***있다**가 ***고서**, ***어서**, 으면서} 동시에 이야기 했다.

b. 순자가 웃—{다가, **있다**가, 고서, ***어서**, 으면서} 이야기 했다.

예문(14a)에서 **동시**에를 넣으면 **면서**밖에 되지 않는다. **동시**에가 없는 예문(14b)에서는 **아서**를 제외하고는 다 쓰일 수 있는데 **면서**와는 동시성이 없다.

아서가 (14b)에서 쓰일 수 없는 것은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서**는 첫 conjunct가 다음 conjunct의 예비수단(pre-step means)을 이룰 때에 쓰인다. 예문(14b)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웃는 것을 예비수단으로 할 이유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아서**가 쓰이지 않는다.

(15) a. 판사가 그 부부를 갈—{*으다가, ***있다**가, *으고서, **고**아서, *으면서} 놓았다.

b. 순자가 팔래를 틀—{다가, **있다**가, 고서, **어서**, 으면서} 잤다.

예문(15a)에서 판사가 부부를 양쪽에 놓기 전에 갈아야 한다. 즉 가름이 놓음의 pre-step means 역할을 해야 한다. 예문(15b)에서는 다 쓰일 수 있으나 뜻이 다르다. Pre-step means로서는 **아서** 밖에 없다.

고서의/주된 기능은 ‘그리고나서’(and then)의 뜻이다.

(16) a. 철수는 귀국하—{*다가, ***있다**가, 고서, ~~아서~~, *면서} 곧 결혼했다.

b. 철수는 귀국하—{?*고서, 아서} 곧 결혼하지 않으려면 왜 오기 전에 약혼했는지 모르겠다.

예문(16a)에서 **고서**와 **아서**가 다 쓰인다. 그러나 그 차이점은 (16b)에서 어느 정도 뚜렷이 나타난다고 본다. **아서**는 pre-step means를 나타내며 목적의식 없이 한 행위이고 **고서**는 목

적의식이 없으라는 법은 없지만 다음 conjunct의 행위를 미리 겨냥한 행위로서는 어딘가 좀 부족하다고 본다. Opposite conjuncts의 기준을 논할 때에 sequential time adverb가 있으면 고서가 쓰인다고 한 것도 고서가 ‘and then’의 뜻이 뚜렷함을 뒷받침해 준다.

고서와 아서가 거의 차이 없이 쓰이는 경우가 있다.

(17) a. 철수가 핸들을 잡—{고서, 아서} 돌렸다.

b. 철수가 사과를 들—{고서, 어서} 먹었다.

그 이유를 살펴 보면, 고서가 ‘행위유지의 동사’(act-preserving verbs)와 같이 쓰이면 아서와 고서가 거의 차이 없이 쓰일 수 있다. 행위유지의 동사는 들다, 쓰다(모자), 잡다, 덜다, 안다, 따위이다. 이런 동사에서는 고서가 ‘그리고 나서’라기보다 ‘그럼과 동시에’의 뜻으로 수정되기 때문이다.

Pre-step means로서의 아서가 들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18) 문을 열—{고서, *어서} 들어 오라.

들어 오기 위해서는 문을 여는 것이 pre-step means이겠는데 아서가 안 쓰이고 오히려 고서가 쓰이고 있다. 이치로 따지면 문을 여는 것과 방에 들어 가는 것은 예비행위 대 본행위가 되겠는데 아서가 안 쓰이는 것은 더 연구를 요한다.

행위연속 접속사들과 형태는 같으면서도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경우는 대략 다음과 같다.

(19) a. 철수는 놀—고, 순자는 공부했다(대칭적)

b. 비가 오—아서, 나는 집에 있었다.(이유)

c. 철수가 떠나—면서, 순자와 악수했다.(그때에 좀 앞서서)

d. 머느리가 들어 오—면서, 집안이 명랑해 졌다.(그때부터)

e. 이 책을 갖—{다가, 어다가}, 읽어라.(그리고서)

예문(19a)는 대칭적(symmetrical, cf. R. Lakoff, 1971) 용법의 고(그리고)이다. (19b)의 아서는 이유 접속사이다. (19c)의 면서는 ‘동시에’가 아니고 오히려 ‘그 때에 좀 앞서서’의 뜻이며, (19d)의 면서는 ‘면서부터’의 뜻이다. (19e)의 어다(가)는 다가로도 축락이 될 수 있으며 다(가)와 어다(가)는 뜻이 다르다.

(20) a. 밥을 들—다가, 먹어라.

b. 밥을 들—어다가, 먹어라.

이상에서 살펴 본 행위연결 접속사의 속성을 일목요연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다음의 matrix를 만들어 보겠다.

이 matrix에서 s.t. adv.는 sequential time adverb를 뜻한다.

(21) Matrix of act-sequence conjunctors

	다(가)	았다(가)	고(서)	아(서)	면서
opposite conjuncts	+	+	+/s.t. adv. -/기타	-	-
unlike subject and unlike predicate	-	-	+	-	+
completeness of 1st conjunct	-	+	+	+	-
simultaneous	-	-	-	-	+
pre-step means of 1st conjunct	-	-	-	+	-
and then	-	-	+	-	-
다른용법			대칭적	이유	1. 그때쯤전 2. 그때부터

II.3. 반대행위/사태 접속사

이 항에서는 반대행위/사태 접속사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이 범주에 드는 접속사는 대개 다음과 같다. 나, 아도(모음조화에 의해서 어도로 된다), 지만, 【】s 만, 는데, 는데도.

우선 이 범주에 드는 접속사는 형태적으로 다른 범주의 접속사와 다소 다르다. 이유 접속사 중에서 과거형 았과 같이 쓰일 수 없는 것은 아서뿐이다. 행위연결 접속사 중에서는 다가만이 과거형 았과 같이 쓰이고, 면서는 과거형과 쓰이면 다른 뜻으로 변한다. 이와 반해 서, 반대행위/사태 접속사는 어느 것이나 과거형 았과 쓰일 수 있다.

우선 지금 논의할 접속사들의 유사점을 살펴 보자. 반대행위/사태 접속사라 함은 두 conjuncts가 반대 명제(proposition)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

(21) 바람이 부—{나, ㄴ어도, ㄴ지만, ㄴ다만, 는데, 는데도} 시원치 않다.

예문 (21)에서 보듯이 어느 접속사나 다소 뜻은 다르지만 모두 반대행위/사태의 뜻으로 쓰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명령문과 제안문에서는 이들 접속사의 차이점이 다소 나타나기 시작한다.

(22) a. 잠이 오—{? 나, 아도, 지만, ㄴ다만, *는데, *는데도} 공부하라.

b. 영화가 지루하—{? 나, 아도, 지만, 다만, *ㄴ데, *ㄴ데도} 더 보자.

예문 (22a,b)에서 는데와 는데도는 비문법적이다. 나는 억지로 끌려면 쓸 수 있는 것 같으나 뒤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이 있다.

평범성(average)이 기준이 되면 차이점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여기에서 평범성이란 영어의 *wh-ever...do*와 같은 뜻으로 누가 하나, 무엇을 하나, 언제 하나, 어디서 하나, 어떻게 하나를 뜻한다.

(23) a. 그 일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 아도, *지만, *ㄴ다만, *는데, 는데도} 별 수 없다.

b. 철수는 무엇을 하—{나, 아도, *지만, *ㄴ다만, *는데, 는데도} 잘 한다.

예문 (23a,b)에서 보듯이 평범성이 갖드리면 **지만**, **【】s만**, **는데**는 쓰이지 않는다.

극성(polarity qualified)이 기준이 되면 이들 접속사의 차이점이 더 잘 나타난다. 극성이라 함은 사물이나 사람이나 행위의 극대 극소의 양극을 나타낸다는 뜻이다.

(24) a. 그 일은 갓난애가 하—{*나, 아도, *지만, *ㄴ다만, *는데, 는데도} 될 수 있다.

b. 그 일은 장관이 하—{*나, 아도, *지만, *ㄴ다만, *는데, 는데도} 안 될 것이다.

예문 (24a,b)에서 갓난애는 능력이 마이너스 극이고 장관은 그 능력이 플러스 극이라는 전제(presupposition)가 깃들여 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예문은 무의미하게 된다. 극성이 나타난 문장에서는 **아도**와 **는데도**만 쓰인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25) a. 그 일은 내가 하—{*나, 아도, *지만, *ㄴ다만, *는데, 는데도} 될 수 있다.

b. 그 일은 내가 하—{*나, 아도, *지만, *ㄴ다만, *는데, 는데도} 될 수 없다.

예문 (25a)에서는 내가 무능력자라는 전제가 되어 있고, (25b)에서는 내가 능력자라는 전제가 되어 있다. 만일 그런 전제가 없으면 예문은 무의미하게 된다.

예문 (24)와 (25)에서는 명사에 극성이 주어진 형태이지만 그 극성을 동사에 주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6) 죽—{*으나, 어도, *지만, *는다만, *는데, 는데도} 그런 일은 하지 마라.

예문 (26)에서 죽는다는 동사는 어떤 행위의 극단을 표시하는 것이다.

극성이 부사나 형용사에 주어져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때에는 영어로 *however adjective/adverb*의 뜻이 되며 한국어에서는 제아무리 형용사/부사의 뜻이 된다.

(27) a. 이 문제가 제아무리 어려우—{*나, 어도, *ㄴ지만, *ㄴ다만, *ㄴ데, ㄴ데도} 풀 수 있다.

b. 이 문제는 제아무리 깊이 생각하—{*나, 아도, *지만, *ㄴ다만, *ㄴ데, ㄴ데도} 풀 수 없다.

형용사나 부사의 극성을 나타내는 제아무리가 있으면 **아도**와 **는데도**밖에 쓰일 수 없다. 그런데 제아무리는 접속사 없이는 단독적으로 쓰이지 않는다.

(28) a. *나는 제아무리 바쁩니다.

b. *I am however busy.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극성이 명사에 주어지건, 동사에 주어지건, 형용사 또는 부사에 주어지건, 극성이 일단 나타나면, **아도**와 **는데도**만이 쓰임을 알 수 있다.

극성이 표준이 되면 **아도**와 **는데도**가 같은 행태(behavior)를 가지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 가치판단(generic evaluation)이 표준이 되면 **는데도**마저 탈락되고 오직 **아도**만이 쓰인다.

(29) a. 여자는 키가 너무 크—{*나, 어도, *지만, *다만, *ㄴ데, *ㄴ데도} 곤란하다. (창

피하다, 안 좋다, 안 된다, 못 쓴다)

- b. 바람이 너무 부—{*나, ㄹ어도, *ㄹ지만, *ㄴ다만, *는데, *는데도} 명태잡이에
안 좋다.

일반적 평가는 긍정적으로도 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도 할 수 있다. 예문(29a,b)는 부정적 평가(negative evaluation)만을 나타낸다.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되나 살펴 보자.

- (30) 여자는 키가 너무 작—{*으나, 아도, *지만, *다만, *은데, *은데도} 무방하다.(상관없다).

일반적 가치 판단이 긍정적인 경우에도 부정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도**만이 쓰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자기판단의 동사(verbs of self-judgement)가 첫 conjunct에 쓰이면 어떻게 되나 살펴보자. 자기판단의 동사라 함은 서술문에서는 1인칭 주어에만 쓰이고, 의문문에서는 2인칭 주어에만 쓰이는 동사를 가르킨다. 예컨데, 좋다, 싫다, 예쁘다, 무섭다, 귀엽다, 미웁다, 그리웁다, 기쁘다, 부끄럽다, 따위이다. 서술문에서 이런 종류의 동사를 쓰는 것은 주어가 1인칭이 아니라면, 남의 판단을 자기의 판단처럼 월권행위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서술문에서 2인칭 3인칭에도 쓰이는 경우가 있다. 자기가 남의 주관적 판단을 권위자적 입장에서 추측판단(authoritative conjecture)을 하면 쓸 수 있다.⁵

- (31) a. *너/그는 호랑이가 무섭다.

- b. 거짓말 하지 마라. 너는 호랑이가 무섭다.(권위자적 추측)

자기판단의 동사가 첫 conjunct에 쓰이면 【**s**만은 쓰일 수 없다.

- (32) 철수/너는 호랑이가 무서우—{나, 어도, ㄹ지만, *ㄴ다만, ㄴ데, ㄴ데도} 산에 혼자 갔다.

예문(32)에서 【**s**만이 쓰일 수 없는 것은 이유가 분명하다. 접속사 【**s**만은 한 문장의 종결어미까지 다 끝나고 나서 만이 붙은 형태이다. 이와 반해서 다른 접속사들은 종결어미의 어느 부분이 제거 되고(Modality Deletion, cf. Yang(1972)) 접속사가 붙은 형태이다. 이런 차이가 접속사의 차이를 만든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 더 고려할 점은 **지만도** 【**…지**】**s** 만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런 분석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만일 이런 분석이 옳다면 【**…지**】만도 주어가 2인칭 3인칭일 때에 자기판단의 동사와 함께 쓰일 수 없어야 할 터인데, 그렇지 않으니 그냥 **지만**으로 보아야 한다.

간접적인 반대행위/사태(indirect counter-act/event)가 기준이 되면 **는데**만 쓰이는 것 같다.

⁵ 이런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토론은 Yang(1972: 159-173)을 참조할 것.

(33) 나는 졸려 죽겠—{*으나, *어도, *지만, *다만, 는데, ?*는데도} 옆에서들 떠든다.
사과하며 요청하는 것(request by apology)이 기준이 되면 **지만**과 **【】s만**만이 쓰이는 것 같다.

(34) 실례 이—{?*나, *어도, 지만, ㄴ니다만, ?*ㄴ데, *ㄴ데도} 좀 비켜 주세요.
이상으로 반대행위/사태 접속사(counter-act/event conjunctors)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 보았다. 이제 형태는 같지만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것을 살펴 보자.

(35) a. 그는 오나 가나 말썽이다.(선택)

b. 코끼리 비스켓 하나 먹으나 마나 마찬가지다.(선택)

c. 기회가 참 좋다**만**.(가상법)

d. 기회가 참 **좋은데**.(가상법)

e. 그릇을 깨**는데** 조심하라.(경고, 걱정)

f. 돈이 없**는데** 십원만 내시오.(동정)

g. 이제 가을**인데** 시원하겠다.(더 설명)

h. 내가 진공청소기를 샀**는데** 그것이 고장났다.(더설명, 비제한적 관계화)

i. **오이나** 고추 사세요.(둘다 또는 하나만)

(35a)는 선택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이때에는 동사가 반대어(antonym)이어야 한다. (35b)는 선택은 선택인데 둘째 동사가 첫째 동사의 부정인 경우이다. 하나 마나는 화자가 이미 결과를 알고 있거나 예측하고 있을 때에 쓰이며 긍정적으로나 부정적 결과 또는 예측에 다 쓰인다. (35c,d)는 가상법으로 쓰인 경우이다. **는데**는 여러가지로 쓰이는데 경고, 걱정, 동정 등으로도 쓰이며 어떤 speech act를 더 설명할 때에도 쓰인다. 영어의 비제한적 용법의 관계화 문장을 번역할 때에는 **는데**가 쓰인다(cf. Yang 1972: 225-226)). 예문 (35i)에서 나는 두 가지 모두 또는 그 중에서 하나를 사라는 뜻이다. 영어에서 and/or의 용법과 같다.

반대행위/사태 접속사들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일목요연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다음의

(36) Matrix of counter-act/event conjunctors

	나	아 도	지 만	【】s만	는 데	는데도
command, suggestion	*—	+	+	+	—	—
average, (wh-ever)	+	+	—	—	—	+
polarity qualified	—	+	—	—	—	+
generic evaluation	—	+	—	—	—	—
verb of self-judge with 2/3 persons	+	+	+	—	+	+
indirect counter-act/event	—	—	—	—	+	—
request by apology	*—	—	+	+	*—	—
다른용법	선택			가상법	1. 가상법 2. 경고, 걱정 3. 동정 4. 더설명	

matrix 를 만들어 보겠다.

Ⅲ. 접속사의 도입

이 절에서는 접속사를 어떻게 도입할 것이냐를 살펴 보고자 한다. 관계사(relativizer)의 경우에는 관계사를 기본구조에 넣지 않고 변형에 의해서 삽입함이 바람직하다. 관계사가 있는 언어에 있어서는 pro-formation으로 관계사를 도입하고, 관계사가 없는 언어(예컨대 한국어나 일본어)에 있어서는 그런 과정이 불필요하다. 그런데 관계화 이전의 두 문장의 뜻이 관계화 이후의 뜻과 다르다면 그 뜻의 차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큰 문제거리가 아닐 수 없다. 만일 해석 의미론(interpretive semantics)식으로 한다면 그런 의미의 차이를 표면 구조 의미해석(surface structure semantic interpretation)규칙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반대로 생성 의미론(generative semantics)식으로 한다면 기본구조에 그런 의미의 차이를 표시해야 한다.⁶

보문사(complementizer)의 경우에는 종래에 흔히 삽입변형에 의해서 처리해 왔다. 삽입변형으로 처리한 근거는 보문사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고 또한 환경에 의해서 예측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Bresnan(1970), Keenan(1969: 13-14), Karttunen(1971: 60-61), Yang(1972: 13-19)에 있어서는 보문사의 차이 때문에 의미가 달라지는 현상을 포착하고 그런 의미의 차이를 표시하기 위해서 보문사를 기본구조에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이제 접속사를 어떻게 도입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 보고자 한다. 그 방법으로서 다음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1) 접속사의 도입방법

a. 삽입가설(insertion hypothesis)

⁶ 종래에 관계화는 NP-S 분석을 주로 해 왔는데, 이 분석에 몇 가지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quantifier 현상에서 오는 문제이다.

- (1) a. All the boys who left early missed the show.
 a'. All the boys left early. (not entailed)
 b. Every boy who left early missed the show.
 b'. Every boy left early. (not entailed)
 c. No body who left early missed the show.
 c'. No body left early. (not entailed)

Matching analysis의 또 하나의 결점은 어떤 관용구에서는 matching이 안 되는 것이 있다.

- (2) a. The headway that we made was satisfactory.
 a'.* (The) headway was satisfactory.
 b. The careful track that she's keeping of her expenses pleases me.
 b'.* (The) careful track pleases me.
 c. I was offended by the lip service that was paid to civil liberties at the trial.
 c'.* I was offended by (the) lip service.

Schachter(1972)는 matching analysis 대안으로 promotion analysis를 제시하고 있다.

b. 비삽입가설(non-insertion hypothe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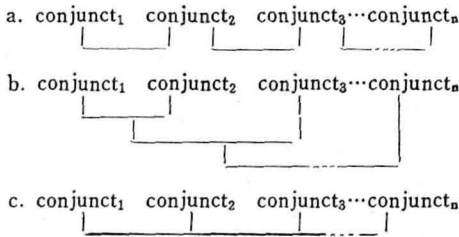
1. 중립가설(neutral hypothesis)

2. 종속접속사가설(subordinate hypothesis)

삽입가설은 접속사를 기본형에 두지 않고 삽입변형에 의해서 도입하는 방법을 뜻한다. 비삽입가설은 접속사를 변형규칙에 의해서 삽입하지 않고 미리 기본형에 표시하는 방법이다.

삽입가설이 성립되려면 접속사가 conjuncts의 의미내용에 의해서 예측(prediction)이 되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삽입가설은 포기되어야 한다. 접속사가 결정될 수 있는 환경은 다음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2) 접속사 결정의 환경



(2a)는 접속사가 각기 인접문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를 나타낸다. (2b)는 맨 처음 접속사는 conjunct₁과 conjunct₂에 의해서 결정되며 둘째 접속사는 conjunct₁과 conjunct₂의 의미내용의 총화와 conjunct₃에 의해서 누적적으로 결정되는 경우를 나타낸다. (2c)는 하나의 discourse 안에서 모든 접속사는 모든 conjuncts의 상호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를 나타낸다. Discourse의 세계에서는 문장의 연결이 (2a)식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당장 formalize하기는 어렵지만 (2b)와 (2c)의 결합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여 진다.

다음의 conjuncts(즉 문장)들을 접속사로 연결해 보자.

(3) s₁. 비가 온다.s₂. 우산이 없다.s₃. 집에 있고 싶다.s₄. 나가야지.

(4) a.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어서, 집에 있고 싶—으나, 나가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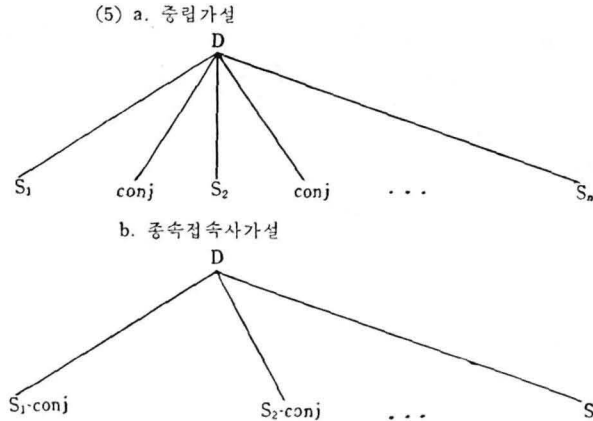
b. 비가 오—면, 우산이 없—고, 집에 있고 싶—어도, 나가야지.

c. 비가 올—때에, 우산이 없—으면, 집에 있고 싶—은데, 나가야지.

예문 (4)에서 보듯이 일정한 자리에 일정한 접속사가 꼭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실은 접속사가 문장의 의미내용에 따라서 일정하게 예견될 수만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삽입가설은 적절한 처리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삽입가설이 적절치 않다면 비삽입가설이 후보로 등장할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접속

사를 미리 기본구조에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다. 비삽입가설은 두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중립가설(neutral hypothesis)이고 다른 하나는 종속접속사가설(subordinate-hypothesis)이다. 중립가설이란 접속사를 conjuncts 의 중간에 놓는 것이고, 종속접속사가설은 접속사를 앞서 가는 conjunct에 붙여 놓는 방식이다.



D 는 discourse, con 는 접속사, S 는 문장 즉 conjunct를 가르킨다. (5a)와 (5b)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적절한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의미론 중심으로 말하면 중립가설이 더 적절한 듯하다. 왜냐하면 접속사는 conjuncts 의 의미내용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universal grammar의 입장에서 봐도 (5a)가 더 적절한 듯하다.⁷

그러나 한국어 중심으로 생각하면 (5b)도 덜 적절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 의미론적 견지에서 접속사를 앞의 conjunct에 붙여 놓았다고 하면 그만이다. 다음은 구문론적 입장에서 검토가 돼야 하겠다. 이 점을 밝히기 위해서 한국어의 접속화 현상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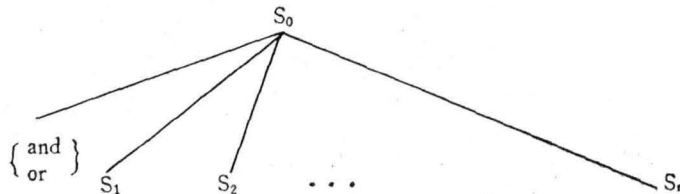
(6) a. 철수는 열심히 공부하—아서, 성공했다.

b. 철수는 공부하—고, 순자는 빨래했다.

(7) a. 철수는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하—아서, 그러—아서, 하—아서} 성공했다.

b. 철수는 공부했다. {그러하—고, 그러—고, 하—고} 순자는 빨래했다.

⁷ 영어의 and나 or가 반복되어서 나오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다(of. Ross, 1967).



이 기본형에 분배규칙(distribution transformation)을 적용해서 and나 or가 문장사이에 들어간다. 그러나 그런 기본형은 접속사 범주를 일반적으로 다룰 수 없다.

예문 (6)은 종속접속사 형식인데 반하여 예문 (7)은 (6)에 각기 상응하는 대등접속사 형식이다. 곧 논의되었지만 대등접속사는 대개 세 가지 꼴로 나타난다. 예문 (7)에서는 기본형으로 표기했으며 음운규칙에 따라서 그리하—아서→그리해서, 그리—아서→그래서, 하—아→해서, 그리하고→그리하고, 그리고→그리고, 따위로 된다.

만일 중립가설 (5a)를 채택한다면 종속접속사꼴과 대등접속사꼴을 만들기 위하여 두 가지 변형이 필요하게 된다. 그와 반대로, 종속접속사가설 (5b)를 채택한다면 오직 하나의 변형 즉 대등접속사 형성규칙이 필요할 뿐이다. 따라서 한국어(일본어도 마찬가지다)에 관한 한, 의미론 적으로 두 가설이 비등하니까 구문론적으로 간편한 종속접속사가설을 채택함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⁸

이제 대등접속사 형성규칙에 대해서 더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위에 든 (5)에서 종속접속사가설은 내세워도 대등접속사가설은 내세우지 않는 이유가 있다. 대등접속사의 구성을 자세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8) a. 그—러—하—접속사

b. 그—러—접속사

c. 하—접속사

대등접속사의 으뜸꼴은 (8a)이다. 그 변형으로서 (8b)와 (8c)가 나타난다. 현대한국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8b)이다. 이들 요소를 검토해 보면 그는 앞 문장 또는 앞서 가는 전체 discourse의 가름꼴(pro-form)이고, 러는 양태(manner)를 나타내는 형태소로서 자연스럽게의 러와 같은 것이다. 영어의 so나 such에 비슷한 의미내용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하는 동사의 가름꼴(pro-verb)이다. 이와 같이 대등접속사는 종속접속사의 pro-formation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5)의 대상에서 미리 제거한 것이다.

그에 대해서 더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것은 그 혼자만의 세계가 아니고 저, 이와 더불어 하나의 자연류(natural class)를 이루고 있다. 한국어에 있어서 primitive deictics는 그, 저, 이이다. 이는 말하는이(speaker)에 가까운 것에 쓰고, 그는 듣는이(addressee)에 가까운 것에 쓰며, 저는 듣는이와 말하는이에서 모두 떨어져 있는 것을 가르킬 때에 쓴다. 이것들이 사람이나 사물이나 장소나 시간들과 결합이 되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9) a. (사람): 이사람, 그사람, 저사람

b. (사물): 이것, 그것, 저것

c. (장소): 이곳, 그곳, 저곳

d. (방향): 이리, 그리, 저리

e. (정도): 이쯤, 그쯤, 저쯤

⁸ 이러한 근거에서 Yang(1972:3)에서는 initial constituent structure rule을 S→P—M(Conj)로 설정한 것이다.

- f. (방법) : 이렇게, 그렇게, 저렇게
- g. (시간) : 이때, 그때, *저때(접때)
- h. (시간) : 이날, 그날, *저날
- i. (시간) : 이번, (*)그번, 저번
- j. (감탄사) : 이런 ! (*)그런 ! 저런 ! (그런 나쁜놈 !)

이렇게 보면 한국어의 primitive deixis는 삼자구별 방식(three-way distinction)임을 알 수 있다.⁹

그런데 이, 그, 저와 같은면서도 다소 다른 것으로 요와 고가 있다. 요는 이의 계열이고, 고는 그의 계열이다. 저에 해당하는 것은 없는 것 같다. 이와 그 대신에 요와 고를 쓸때에는 말하는이가 어떤 것에 대해서 그것을 낮게 평가하거나 알잡아 보는 전제(presupposition)가 되어 있다.

(10) a. 요것 봐라 ! 꽤 어려운데 !

b. 갑돌이가 다른 여자와 결혼해 버리니까, 갑순이는 고까짓것 했드란다.

접속사에 있어서도 이, 그, 저, 요, 고가 대등접속사 형성에 모두 쓰인다.

(11) 물지각한 사람들이 많아. {이, 그, 저, 요, 고}래서, 사회는 명랑하지 않아.

이상에서 대등접속사는 종속접속사의 proformation임을 검토했고, 비삽입가설을 택하는 경우 중립가설보다는 종속가설이 더 경제적임을 검토해 보았다.

Ⅳ. Discourse 와의 연관

언어학 연구가 진전됨에 따라서 의미의 세계가 증시되게 되었다. 그러나 진정 그 어려운 의미의 세계를 뚫고 들어 가려면 종래에 능사로 여겼던 개별문장의 세계로서는 도저히 대응이 되지 않는다. 의미의 세계를 더 파해치기 위해서는 discourse 세계가 언어학의 적절한 대상이 되어야 한다. Discourse 분석은 다른 각도에서도 가능하지만, 가장 중요한 분야는 conjunction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문장이 discourse에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conjunction이기 때문이다.

Discourse 분석에 있어서 문제 중의 하나는 discourse한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것이다. 하나의 방법은 화제(topic)중심이라 할 수 있다. 하나의 주제가 계속되는 한 그 discourse는 계속된다고 보자는 것이다. 우리는 일상대화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경험한다.

(1) Speaker₁: 이렇고, 저렇고, 그렇다. 이제 화제를 바꿉시다.

Speaker₂: 그럼시다.

(2) Speaker₁: 이렇고, 저렇고, 그렇다.

Speaker₂: 그래서, 어떻단 말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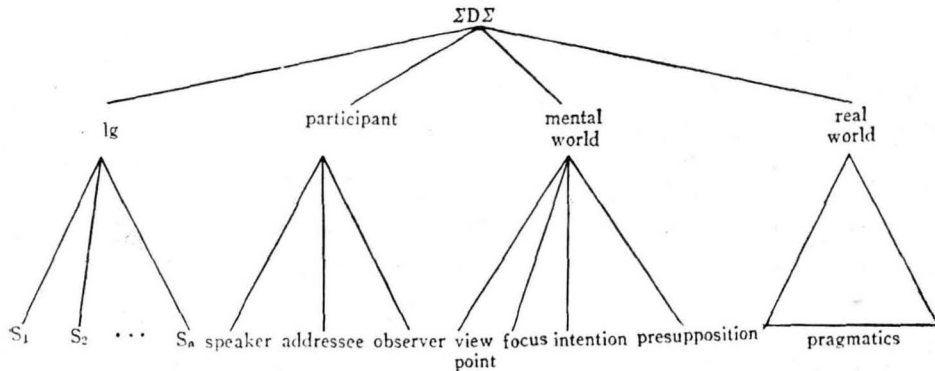
⁹ 그, 이, 저에 대한 더 자세한 것은 Yang(1972: 246)참조.

(1)과 (2)는 각각 하나의 discourse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일상대화에서 문장마다 접속사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많다. 그러나 이것은 performance chop이지 competence chop이 아니다. 사실은 각 문장이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다. 하다못해 대칭적(symmetrical) 용법을 가진 **그리고**가 붙기 마련이다. 각 문장마다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다는 좋은 심리적 실제(psychological reality)가 있다. 어린애들은 문장마다 접속사로 연결하려 한다. 어린애들이 왜 접속사로 연결하려 할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 어린이의 세계에서는 그러지 않고는 discourse가 끊어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일 것이다. 말이 능숙해짐에 따라 접속사의 사용이 redundant할 때에는 생략해 버린다. 어른의 대화에서 **그리고**를 너무 많이 쓰면 어린애처럼 들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Conjunction을 다루려면 discourse가 끼어 들어야 하고, discourse를 논하려면 conjunction이 끼어 들어야 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문장의 단위를 넘어서 discourse가 단위가 된다면 다음과 같은 schema를 잠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3)



D 는 discourse, Σ 는 discourse boundary, lg 는 linguistic form을 나타낸다. 한 단위의 discourse를 의미있게 하기 위해서는 언어 형태부분과 참가자(participants)부분과 마음의 세계(mental world)와 실제세계(real world)가 필요하게 된다.

Speech act에는 참가자가 필요하게 되는데 화자(speaker)와 청자(addressee)와 방청자(observer)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방청자라 함은 speech act 장면에서 대화자들 외에 그 장면에 개제됨으로서 대화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를 가르킨다. 화자와 청자가 언어 기술과 설명에 필요한 요소라는 것은 이미 상식이 되었다. Austin(1962) 식이전 Ross(1970) 식이전 이행분석(performative analysis)에 있어서 없어서는 설명이 곤란한 점이 많다. 한국어에서 자기판단의 동사를 설명함에 있어서도 화자의 도입 없이는 일률적인 설명이 곤란하다. 방청자가 필요한 이유는 얼마든지 들 수 있다. 영화의 대화 장면을 생각하면 도움이 된

다. 거기에서 대화자끼리 하는 말은 사실은 시청자를 위해서 하고 있다. 또한 두 대화자가 대화를 할 때에도 단 둘이서 이야기할 때의 style과 어떤 방청자가 옆에 있을 때의 style은 다르다. 어떤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에게 쓴 충고를 직접하기 어려울 때에 제 삼자를 addressee로 삼고 겨냥한 사람을 observer로 삼아서 충고하는 수가 있다. 이 경우에 observer는 화자가 겨냥한 intended addressee이다.

언어기술 및 설명에 마음의 세계(mental world)가 필요하다는 것도 이제는 이미 상식이 됐다. 언어는 실제세계(real world)를 그대로 표현함을 이상으로 하겠지만 일단 화자의 마음의 세계에서 걸러서(filtering) 표현 되기 마련이다. R. Lakoff(1970)의 예를 빌어 보자.

(4) a. The animal you saw *was* a chipmunk: see, there he is running up a tree.

b. That thing rustling in the bushes over there *will* no doubt be a chipmunk: let's wait till it comes out.

시제의 선택이 어느 정도 화자가 어떤 사태에 대해서 느끼는 주관적 요소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것이다. (4a)에서 밀줄친 과거형이 쓰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실제세계에서는 그 동물의 동물이 아직 존재하며 아직도 동일한 동물이다. 그러나 화자의 마음의 세계에서는 그 동물이 나타났다가 이제 사라졌다. 따라서 이제 관계가 없다.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화자는 그의 존재를 이제 더 이상 의식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과거형을 쓴 것이다. 예문 (4b)에서는 발화 순간에 무엇인가 분명히 있지만 그 동물이 어떤 것인가는 아직 화자의 마음에 분명치 않다. 화자에 관한 한 그 동물이 발화 순간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래를 썼다. R. Lakoff는 이런 예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화자의 관점(view point)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언어생활에 있어서 초점(focus) 또는 역점(emphasis)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언어표현이 매우 달라진다. 비근한 예로서 능동형과 그에 대응하는 수동형이 동의성(synonymy)이 있느냐 아니냐는 심히 논란거리인데 focus를 언어기술에 도입함으로써 사소한 의미의 차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영어에 있어서 cleft sentence나 pseudo-cleft sentence와 그렇지 않는 문장의 차이도 focus의 문제와 관련된다.

화자의 의도(intention)도 중요한 요소라 여겨진다. 동일한 언어형태가 화자의 의도에 따라서는 locution으로 그칠 수도 있고, illocution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perlocution으로 될 수도 있다.

(5) 방이 매우 차다.

이 언어표현은 그저 방이 매우 차다는 것으로 그친다면 locution이요, 추우니 문을 닫으라든지 불을 더 피워 달라는 뜻으로 말했다면 illocution이요, 왜 방을 따뜻하게 해놓으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차게 해놓았느냐 구중을 좀 들어야 되겠다는 뜻으로 말했다면 perlocution이 된다. 이 문제는 실제세계를 논의할 때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겠다.

전제(presupposition)가 언어기술 내지 설명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논의된 지 이미 오래된 이야기이다. Kiparsky-Kiparsky(1970)의 “Fact”를 위시해서, Horn(1969)의 *also*와 *even*의 분석,¹⁰ Lakoff(1969, 1970)의 연구들, R. Lakoff(1969)의 *some*과 *any* 관계분석 및 Fillmore-Langendoen(1971)에 수록된 논문들에 presupposition이 많이 논의된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어에 있어서 한정사(delimiters)도 presupposition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현상이다. 가령 법정에서 남편된 피고에게 “자네 부인 때렸나?”라고 물었을 때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고 가정하자.

- (6) a. 몽둥이로는 안 때렸습니다.
 b. 몽둥이로야 어찌 뺄겠습니까.
 c. 종이로도 안 때렸습니다.

만약 남편인 피고가 (6a)로 답변했다면 피고는 형의 경중 간에 유죄하다. 왜냐하면 몽둥이로는 안 때렸지만 다른 것으로는 때렸다는 전제가 되어 있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6b)의 경우도 인간미가 더 있기는 하지만 역시 유죄하다. 만약 (6c)로 답변했다면 피고는 무죄이다. 왜냐하면 더 위험한 것으로도 안 때렸지만 상처를 낼 수 없는 종이로도 안 때렸기 때문이다.¹¹

마음의 세계에 이상의 요소들을 포함시켰는데, 더 늘릴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entailment는 mental world에서 제거했다. 왜냐하면 entailment는 mental world의 요소라기 보다는 언어형태와 real world의 추리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 (7) a. John *barely* caught the bus.
 b. John *nearly* caught the bus.
 (8) a. John caught the bus.
 b. John didn't catch the bus.

예문 (7a)는 (8a)를 entail하고, (7b)는 (8b)를 entail한다. 다른 예문을 들어 보자.

- (9) a. The glass is half empty.
 b. The glass is half full.

이 두 문장은 실제 세계에서는 같은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¹² 이 두 문장이 현실 세계에서

¹⁰ Fraser(1971)는 영어의 ‘even’분석에 있어서 자기가 전에 presupposition을 도입해서 분석한 것은 잘못이고, implication 분석이 맞다고 수정했다.

¹¹ 한정사에 관한 의미론적 분석은(Yang, forthcoming)을 참조.

¹² Shopen(1972)는 이 두 문장이 logical equivalence는 갖지만 semantic equivalence는 갖지 않는다고 한다. Smith(1972)는 (9a)와 (9b)가 긍정문에서는 동일한 진위가를 가지나, 부정문에서는 달라짐을 관찰하였다.

a. The glass is not half full.
 b. The glass is not half empty.
 a'. The glass is less than half-ful.
 b'. The glass is more than half-ful.

동일한 진위가(truth value)를 갖는다는 사실을 상호 entailment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다.

Gruber(1965)에서 예문을 들어 보자.

- (10) a. I bought the book from John.
 b. I received a letter from John.
 c. John strikes me as pompous.
 d. John follows Mary in line.
- (11) a. John sold the book to me.
 b. John sent a letter to me.
 c. I regard John as pompous.
 d. Mary precedes John in line.

예문 (10)과 그에 각기 대응하는 (11)는 현실 세계에서는 같다. 이 사실을 관련되는 두 동사의 상호 entailment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다.

Hertzron(1970)는 lexicon에 entailment를 설정해 놓으면 여러가지 난점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12) **noun: entailed nouns**

theft: existence of thief, victim, stolen object.

war: existence of belligerents, victor.

problem: existence of solution

왼쪽에 있는 명사가 discourse에서 일단 언급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오른쪽에 있는 entailed 된 명사는 이미 알려진 정보이므로 영어에 있어서 정관사(the)를 갖게 된다고 한다. 더 나아가서 entailment에 의한 definitization은 다음의 paradoxical한 문제라고 여겨졌던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 (13) I cut off the lizard's tail, but *it* grew back.

이 예문에서 *it*는 *the lizard's tail*을 가르킨다. 이미 잘려진 꼬리가 다시 *it*로 받는다는 것은 paradox가 아니겠느냐는 제시가 있었다. 그러나 Hertzron은 이 paradox를 잘 설명하고 있다. *tail*은 *lizard*의 전체에 대한 부분어므로, 그 부분이 entailment에 의해서 definitized되었다. Definiteness는 그의 실질적 동일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명사에 대한 'entailed slot'만을 가리키므로 *it*는 paradox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상에서 entailment의 이모 저모를 대략 살펴 보았는데, 요는 entailment는 mental world의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¹³

다음은 실제 세계(real world)가 왜 (3)의 schema에 들어가야 하나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¹³ Entailment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적용된 것은 lexical decomposition 분석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Yang(forthcoming b)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하겠다.

한다. 예문 (5)를 다시 생각해 보자. “방이 차다”는 말은 real world(i.e. situation)에 따라서 entailment가 달라진다.

(14) a. real world가 방이 따뜻한 경우라면, (5)는 방이 따뜻하다는 뜻을 반대로 표현한 것이다.

b. real world가 사실상 방이 차고 또한 문이 열려져 있다면, (5)는 문을 닫으라는 entailment를 낳을 수 있다.

c. real world가 사실상 방이 차고 문이 열려져 있지 않고 heater가 안 켜져 있다면, heater를 켜라는 entailment를 낳을 수 있다.

d. real world가 사실상 방이 차고 문이 닫혀져 있고 heater시설이 없다면, (5)는 이 방에서 나가자는 entailment를 낳을 수 있다.

e. real world가 사실상 방이 차고 방을 따뜻하게 해놓으라고 미리 일러 놓았는데도 안 해 놓은 처지라면, (5)는 꾸중을 할 수 있는 entailment를 낳을 수 있다.

이와 같이 real world(i.e. situation)가 고려 되어야만 언어형태가 유의미하게 이해된다.

실제 세계를 어떻게 체계있게 연구하느냐는 것은 당장은 요원한 이야기지만 언젠가는 극복해야될 문제이다. Pragmatics가 체계적으로 연구되는 날이 오리라고 믿는다.

V. 맺 는 말

제 2절에서는 선택된 접속사들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의미론적 견지에서 검토해 보았다. 이 논문에서 다루지 못한 접속사가 많은데, 이것들은 이 논문의 연속으로 연구 중에 있다.

제 3절에서는 접속사를 어떻게 도입할 것이냐를 여러 가설을 세워놓고 검토하였다. 결론으로 비삽입가설 중에서 종속접속사가설을 채택하였다.

제 4절에서는 접속사의 연구는 discourse 연구를 필히 끌어들이고, discourse의 연구는 접속사의 연구를 끌어들여야 되는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Discourse 분석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언어형태, 참가자, 마음의 세계, 실제 세계등임을 지적하였다.

1950년대에는 언어학이 외국어 교육이라는 응용면과 결부되어 실사회의 실용성 면에서 많은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요지음의 추상언어이론이 더 논의 되면서는 외국어 교육과 거리가 점점 멀어져가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언어학의 돌팔구는 의미의 측면을 더 깊숙히 파헤쳐서 언어학 전문가가 실사회에 수요되는 날이 와야 뚫린다고 믿는다. 다시 말하면, 의미론을 연구함으로써 말하는이의 깊이 숨은 의도와 심리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날이 언어학의 앞으로 기대되는 breakthrough라고 필자는 믿는다. Content analysis도 discourse를에서 의미론이 연구되어야 밝은 전망을 내다 볼 수 있다.

References

- Austin, John L. 1962. *How to do Things with Word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resnan, Joan W. 1970. "On Complementizers: Toward a Syntactic Theory of Complement Types." *Foundations of Language* 6: 297-321.
- Dougherty, Ray C. 1970. "A Grammar of Coordinate Conjoined Structures I." *Language* 46: 850-98.
- Dougherty, Ray C. 1971. "A Grammar of Coordinate Conjoined Structures II." *Language* 47: 298-339.
- Fillmore, Charles J. and D. Terence Langendoen, eds. 1971. *Studies in Linguistic Semantic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Fraser, Bruce. 1971. "An Analysis of 'Even' in English." In Fillmore-Langendoen, 1971.
- Gleitman, Lila R. 1965. "Coordinating Conjunctions in English." *Language* 41: 260-93. Also in David A. Reibel and Sanford A. Schane, eds. 1969. *Modern Studies in English*.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 Gruber, Jeffrey S. 1965. *Studies in Lexical Relations*. Doctoral Dissertation, MIT.
- Harris, Zellig S. 1952. "Discourse Analysis." *Language* 28: 1-30. Also in Jerry A. Fodor and Jerrold J. Katz, eds. 1964. *The Structure of Language*.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 Hertzron, Robert. 1970. "Nonverbal Sentences and Degrees of Definiteness in Hungarian." *Language* 46: 899-927.
- Horn, Laurence R. 1969. "A Presuppositional Analysis of *only* and *even*." Chicago Linguistic Society, ed. *Papers from the 5th Regional Meeting*.
- Horn, Laurence R. 1972. *Untitled Doctoral Dissertation*, UCLA.
- Karttunen, Lauri. 1971. "The Logic of English Predicate Complement Construction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Club.
- Keenan, Edward L. 1969. *A Logical Base for Transformational Grammar of English*.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 Kiparsky, Paul and Carol Kiparsky. 1970. "Fact." In Manfred Bierwisch and Karl E. Heidolph, eds. *Progress in Linguistics*. The Hague: Mouton.
- Lakoff, George. 1969. "Presuppositions and Relative Grammaticality." In William, Todd, ed. *Studies in Philosophical Linguistics*. Evanston, Illinois: Great Expectations Press.

- Lakoff, George. 1970. *Linguistics and Natural Logic*. Ann Arbor, Michigan: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Lakoff, Robin. 1969. "Some Reasons why there can't be any *some-any* Rule." *Language* 45: 608-15.
- Lakoff, Robin. 1970. "Tense and its Relation to Participants." *Language* 46: 838-49.
- Lakoff, Robin. 1971. "If's, And's, and But's about Conjunction." in Fillmore-Langendoen, 1971.
- Ross, John R. 1967. *Constraints on Variables in Syntax*. Doctoral Dissertation, MIT.
- Ross, John R. 1970. "On Declarative Sentence." In Roderick A. Jacobs, and Peter Rosenbaum, eds. *Readings in English Transformational Grammar*. Waltham, Mass.: Ginn and Company.
- Schachter, Paul. 1972. "Focus and Relativization." *Language* 48/4.
- Shopen, Tim. 1972. "Logical Equivalence is not Semantic Equivalence." Chicago Linguistic Society, ed. *Papers from the 8th Regional Meeting*.
- Smith, Steven B. 1972. "Relations of Inclusion." *Language* 48: 276-84.
- Yang, In-Seok. 1971. "Double Modality in Korean." *Language Research* 7: 23-36.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 Yang, In-Seok. 1972. *Korean Syntax: Case Markers, Delimiters, Complementation, and Relativization*. Seoul: Paekhapsa Publishing Company. Also in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Vol. 4, No. 6, 1972.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 Yang, In-Seok. (forthcoming a). "Semantics of Delimiters in Korean and Japanese."
- Yang, In-Seok. (forthcoming b). "Semantics of Korean and Japanese Causation: A Rejoinder."

論 評

李基文 : 종래에 국어 문법에서 최현배 선생님은 이음법, 또는 연결어미라 해서 하나 하나의 어미를 따로 떼어 그것을 의미에 따라 정의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양선생님은 이것을 우선 크게 세 범주로 나누고 더구나 단순한 국어 문제로뿐만아니라 일반이론에도 공헌하는 방향에서 연구하셨으며, 또 끝으로 discourse에 관한 새로운 구상을 말씀하셨습니다.

討 論

徐正洙 : 첫째, II.1의 (3)에서 명령문에서 '-기 때문에'란 것이 흔히 쓰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령 '날씨가 덥기 때문에 가지 마라' 같은 예입니다. 이 경우 부정(否定)이 개입되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만 또 하나 예로 '철수가 공부하기 때문에 순이야 조용히 해라'에서는 주어가 다른 것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 II.2의 (19)에 있어서 ‘-아다가’에 대하여 최현배 선생은 ‘닥아 서다’의 ‘닥아’로 어원을 잡으셨던 것처럼 이것은 바로 위의 (10)부터 (18)까지의 ‘-다가’ 또는 ‘갓다가’의 ‘-다가’와는 달리 ‘가지고 닥아와서’의 뜻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셋째, II.3의 (22)에서 ‘-나’는 물론 형태는 같지만, 동사에 붙는 ‘-으나’가 있고 또 토씨의 ‘-이나’가 있는데, 이 경우 선택적인 뜻이 강하므로 소위 disjunction인 ‘그러나’의 ‘-나’와는 구별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넷째, ‘그리하다’에 관하여 어원을 ‘그리하다’로 생각하셨는데, 원래부터 ‘그리하다’가 ‘-리하-’가 줄어서 ‘-렁-’이 되었다가 결국 ‘-ㅎ’이 떨어져서 ‘그러므로’ 등으로 된 것입니다.

梁棟錫: 뒤의 질문부터 거꾸로 답변해 올라가겠습니다. 넷째 질문은 만약 ‘그리하다’로 기본형을 잡지 않고 ‘그리하다’로 잡는다면 ‘그래서, 그래도,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러나, 이리나, 저리나’ 등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리’가 ‘리’로 된단든지 ‘리’가 ‘래’로 되는 음운현상을 설명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셋째 질문은 제가 말하는 한정사의 ‘나’가 아니라는 것은 (22)의 문장을 대등접속사로 고쳐보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질문은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태는 같지만 용법이 다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갓다가’는 그 용법이 상당히 재미있는 것으로서, ‘그 문제를 갓다가 빨리 갓다가 풀어서...’ 등등에서는 어원과는 점점 뜻이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첫째 질문은 ‘-기 때문에’가 명령문에서 잘 안 쓰인다고 보시는 것은 비문법적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張夷鎭: 제 3절에서 discourse analysis에 대해 말씀하실 때 S₁ conj S₂라고 하셨는데, 그중 conjunctor가 제 2절에서는 종속적인 것이라 단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시하신 S₁ conj S₂에서는 직관적으로 보아 대등적인 것으로 보일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梁棟錫: 저도 그것에 대해 좀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말의 접속사의 기본형은 종속적, 대등적인 기준을 떠나 그 양쪽에 오는 말을 고려한 결과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어란 결국 형식도 무시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사론적으로 형식화하기에 편리한 종속접속사로서 기본형을 취한 것일 뿐입니다.

南基心: II. 2의 (21) Matrix of act-sequence conjunction (24) b, (25) a,b에서 특수한 경우이긴 합니다만, 반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둘이 벌어서 셋이 먹는다’ 같이 다른 주어인 경우도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梁棟錫: 네, 매우 좋은 의견입니다. Ross등도 reference의 문제로 논쟁을 벌인 일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가 벌어서 열식구가 먹네’에서 결국은 수학적 identity가 성립되지 않지만, 이때엔 소위 sloppy identity가 성립 되는 것이지요.

배영남: II. 3의 (32)에서 ‘호랑이가 무서웠는데’란 과거시제로 바꾸면 성립되는 것 같고, 또 II.3의 (25)에서 ‘그일을 내가 하나/지만...’등과 또 (26)의 ‘죽지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꼭 안 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梁棟錫: 직관적으로 ‘죽지만 하지마라’는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자기파단의 동사, ‘무섭다’ 등에 과거를 붙였을 때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인데 시제에 관계 없이 언제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남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권위자적 입장에서 추측 판단(authoritative conjecture)으로 말할 때만은 성립이 되기도 합니다만.

배영남: 또 아까 ‘다가’가 ‘갓다가’에서 왔다고 보신 것 같은데.....

梁棟錫: ‘다가’가 ‘갓다가’에서 왔다고 본 것이 아니고 그저 ‘갓다가’의 특성을 언급했을 뿐입니다.

李基文: ‘다가’ 문제는 역사적으로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최현배 선생님께서 ‘닥아서다’에

서 온 것으로 보였는데 아직 더 연구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리 하다’에서 ‘-리-’로 되었다는 것도 인정하기 곤란한 문제인데, 아마 대명사에 상태동사화하는 요소가 붙은 소위 변격형인 것으로 보입니다.

徐正洙 : ‘그리하고’의 ‘-하-’가 줄어서 ‘그리고’가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梁續錫 : ‘그리하고’가 줄어서 ‘그리고’가 되고 ‘그리고’가 변해서 ‘그리고’가 되었다고 봅니다.